

주안에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1.2
Jan. - Feb. 2024
Vol.12 No.01

통 권 113호

- 제30회 주안에만남
- 요게벳 감사회
- 발렌타인 행사
- 교육부 / 영커플 소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유아세례 축하해요~

지난 12월 31일,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영커플 팀에서 마련한 축하의 자리에 함께 모여 감사와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있다.
(유아세례자: 권라운, 박지은, 사하준, 성찬영, 장사랑, 쟁하영, 전이든, 정한결, 최은준, 현하울) / 관계기사 2-3면 <사진: 양영 기자>



열기 · 환호 · 감동 '멋진 승부'

■ 제1회 주안에컵 축구대회

드디어 대망의 그 날이 왔다. 2024년 2월 4일 FC GOALBAN 주안에컵 토너먼트 제 1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시쯤이 되니 벌써 객석에 관객들로 꽉 찼다. 삼삼오오 앉아 담소를 나누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며 두근대는 마음으로 경기 시작만을 기다리니 덩달아 내 손에도 땀이 가득 차올랐다.

오직 이 날만을 위해 부부가 함께 공원에 가서 연습하고, 매일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주중 목요일에도 열정적으로 따로 모여 연습을 했다고 하니, 오늘의 승리는 누가 거들지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관계기사 2면>

| 박예은 성도 |

■ 제1회 주안예컵 축구대회



‘박진감 넘친 플레이, 아슬아슬 명승부’

〈1면서 계속〉EM팀(감독: 최형선 팀명: 축구과이), 코람데오 팀(감독: 최혁 팀명: FC 빛솔/빛이나는솔로), 영커플 두 팀(감독: 왕승관 팀명: 슈퍼스타, 감독: 정현철 팀명: 불터치) 총 4팀으로 구성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며, 이기는 팀들과 계속해서 맞붙는 토너먼트 식이다.

시작기도는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진행해주셨으며, 대회 선포는 체육국장님이 맡아주셨다. 대회 소개 및 규칙 설명과 시상내역도 설명해주시니, 앞으로의 일정들이 더욱 기대가 되었다.

2:45PM부터 4:30PM 까지는 여자팀의 토너먼트로 이루어졌다. 한 게임당 게임시간은 전반전 & 후반전 포함 총 10분간 진행되었다. 총 4개의 경기를 하였으며, 첫 경기를 치룬 뒤에 3, 4위전,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이 치뤄졌다. 약 한 시간 가량 남자 여자 혼합으로 팀을 결성해 마지막에는 혼합 경기도 하게 되었다. 매 게임마다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순간의 장면들이 눈에 선하다. 스코어가 아슬아슬하게 끝났던 경기,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워 하던 선수들, 이

긴 팀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포효하며 기뻐하던 선수들. 주안예컵을 관람하며 성도들의 다양한 표정과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일 감사했던 것은, 우리의 앓고 서심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가 아무런 부상없이,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하신 것이다.

모든 게임이 끝난 후, 우승팀, 득점상, 매너상, MVP상을 전달하며, 시상품을 받고, 서로 잘했다 칭찬해주고 웃으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유아세례 부모 소감/ 박예은 성도

‘하나님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 무럭무럭...’

2023년 12월 31일은 저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랑스런 아들인 우리 은준이에게도 또 저희 부부에게도 말입니다. 정확히 은준이가 두 돌이 되는 2살에 주안예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 달 동안 배 속에서 꼬물거리던 은준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도 얼마만 된 것 같은데, 태어난지 정확히 2개월 되던 달부터 은준이와 함께 주안예교회를 다니던게 바로 잊고 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 2살이 되어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는 날이 오다니 정말 꿈같고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 유아 세례에 관해 자세히 집중하여 공부하였고, 함께 세례를 받는 아기들 & 가족들과 한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세례 문답을 통해, 문답을 주고 받으며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굳은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은준이도 저희 가족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안예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앞으로의 은준이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은준이와 저희 가족을 주안예교회로 이끌어주시고 유아세례를 받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 요게벳 감사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 따뜻한 손길’

1월 21일(주일)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새가족실 문을 열자 화사한 분위기가 눈을 사로 잡는다.

새가족실에서는 그동안 영커플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수고하신 '요게벳 선생님(17분) 들을 모시고 목회부와 아가페 공동체가 주최한 '요게벳 감사회' 가 진행되고 있었다.

담임목사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경일 장로님의 식사기도가 끝난 뒤 시무장로님들의 식사서빙이 시작되었다.

장로님들은 흰 셔츠에 보타이를 매신 멋진 모습으로 메뉴인 함박스테이크를

서빙 하셨는데 웃어른이신 장로님들께서 술선수범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믹스와일이 담긴 디저트와 데코레이션, 작은 선물들도 요게벳 선생님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커플이 준비했다고 한다.

식사가 끝나고 2부 순서에서는 부모님 대표들이 나와 감사의 글을 낭독했는데, 거의 모든 영커플들이 요게벳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봐주셔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영커플들의 간증으로 요게벳 선생님

들도 아침 일찍 나와 섬기는 의미가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셨다.

영커플의 첼로와 기타 연주로 축복송을 부를 땐 듣는 모든 분들의 얼굴이 은혜로 빛나는 듯 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동분서주하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이지만 먼 훗날 돌아보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고 있을까? 요게벳 선생님들 덕분에 예배시간만이라도 말씀을 통해 충분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한 줄기 빛같은 여유를 누리게 되길 기대해본다.

| 이성은 기자 |

■ 유아세례 부모 소감/ 김보람 성도

‘빛 되신 하나님은 아이의 앞길 비춰주시길’

2023년 12월은 우리 가족에게 유난히 따뜻했고 의미 깊었던 달이다.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이 땅의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사랑이와 함께 기념했고, 한 해의 끝자락에 사랑이가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사랑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소원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맡기며 앞으로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양육하겠다는 신앙고백과 함께 믿음의 다짐을 실천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유아세례를 마치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과 함께 오히려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에게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이 아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함께 돌보며 신앙의 걸음 걸음을 잘 도와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



게. 사랑이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이 뭔가 큰 산처럼 여겨졌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이 느껴졌다. 그때 나는 아차 싶었고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았다.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크고 빛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이 일을 계기로 부모이기 전에 나의 믿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이라 생각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마음과 자세를 재정비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함께 맺어 갈 우리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보가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

■ 제30회 주안에만남



‘예수님 주인 되신 교회... 믿음 생활 설레요’

지난 2월 11일 제30회 주안에만남이 있었다. 특별히,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새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의 하트를 보내주시는 것 같았다.

박찬경 전도사의 찬양 연주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에 충분하여 여기저기에서 사진 찍으며 녹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 피곤하여 눈물 흘리는 새가족도 있었다. 이제는 꼭 만나야 할 주님과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 늘 평안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소원해 본다.

모든 새가족 각 가정에 브니엘 선물카드가 배달되었다. 커

피와 빵을 살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다.

맛있는 식사 후 최혁 담임목사는 주안에교회 목회철학을 말씀해 주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처음으로 오픈하셨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목사도, 성도님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기에, 주안에교회는 말씀이 기준이되어 모든 것이 진행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어 모두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다.

| 임용자 기자 |

‘영적 심폐소생 은혜’

■ 새가족 소감

지난 12월, 15년전 섬기던 교회의 목장에서 만난 김용수 장로님과, 김규실 권사님을 통해 우연히 주안에교회 성탄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낮선 얼굴들, 낮선 예배당, 낮선 예배순서... 그럼에도 한 분 한 분 밝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환영해주시며 친절히 각자 자신의 맡은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계셨던 수많은 성도님들, 어느 주일에배처럼 찬양과 기도로 시작된 예배, 그러나 최혁 목사님의 Baton change zone 설교를 들으며 그동안

영적 체증과 같은 답답함과 무기력감,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해 방황하던 나의 마음의 문을 시원하게 “여기가 문이야”, “나올 수 있어”라며 열어주시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영적 심폐소생술을 받은 이후, 마침 신년 특새를 한다는 소식에 오래동안 메말라있던 내 영혼의 두근거림이 시작되었다. 올빼미과인 내가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람을 여러



소선희 집사

개 맞춰놓고 일어나서 몸이 날아가버릴 듯한 새벽 바람에 옷깃을 여며도 행복해 하며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반복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눈물과 회개, 기쁨, 한동안 잠들어있던 내 영적인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말씀, 기도, 찬양이 회복된 삶을 다시 살게 하심에 감사~

새신자 교육 이후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 방침을 직접 듣고 질문하며 목사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주안에만남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훌륭한 음식, 연주, 테이블 장식으로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영커플 발렌타인 행사

EM 공동체 배려, 영커플 자유 만끽!



‘Such a Rewarding Time’

I was ecstatic when it was announced to EM that we would be babysitting Young Couples' children. When we had our Zoom meeting, I was even more excited when I found out that I would be helping out with the 1-year-old boys with Alice Lee. The day of, most of us came early to help set up the registration table, disinfect tables and chairs, and prepare the activities.

When the parents started rolling in, it went a little rougher than I expected it to. Both boys were upset that they were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but eventually, they warmed up to us.

For the first hour or so, Alice and I played with them in the IC Happy room before we took them to the bounce house that we set up in the fellowship hall. After settling them down, we fed them seaweed soup with rice. It was hilarious when one of them started feeding himself and made a mess on the table...and Alice's hands. We laughed it off and cleaned them up to get them ready for their naps. We struggled to get them to sleep, but eventually we were able to

relax for 25minutes in peace. Soon after that, their parents came to pick them up. In the end, it may have been exhausting, but it was also such a rewarding time.

Hanbi Cho



‘4시간의 행복’

이번 발렌타인 데이를 맞이해서 EM에서 영커플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아주어 늘 육아에 지치고 바쁜 부부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섬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지친 육아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10시부터 무려 2시까지 4시간이나 허락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미루어둔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자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섬겨주시는 분들의 마음은 청소를 위해서가 아니니 무조건 나가자고 해서 아침에 커피도 같이 마시고 맛있는 점심도 오붓하게 먹었습니다. Escape room 도 시간이 맞아 도전하여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긋하게 두명의 시간을 보내며 신나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으로 저희 가정에도 사랑이 풍성한 발렌타인 이었습니다. 예진이가 태어나고 둘 만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섬겨주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부쩍 낮을 가리기 시작하고 부끄럼이 많은 예진이가 EM 언니 오빠들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교회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족이구나 다시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좋은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획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사랑으로 섬겨주신 EM 공동체에게 감사드립니다. | 배유진 집사 |



■ ICY 발렌타인 행사

2월 11일 ICY는 주일 예배 후 특별한 순서를 가졌다. 남학생들은 미리 준비해서 입고 온 흰색셔츠에 보타이를 접착해 매고 테이블 셋팅과 테코를 예쁘게 장식한뒤 PSG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타코와 음료수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학생들에게 서빙했고, 그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였다.

맛있는 식사가 끝난 뒤에는 같이 게임도 하고 사진부스에서 사진도 찍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 진정한 제들맨들은 우리 주안예교회 ICY에 다 모인거 같아 미래가 밝다.



■ ICY 고등부(9~12학년) 친교모임

프레지던스데이 연휴였던 2월 17일 토요일에 크리스목사(ICY담당) 댁에서 고등부 약 36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아이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출출해졌을 무렵 Panda Express로 맛있게 식사를 했다.

특pecially 이날은 3월 부터 시작될 EM 대학 청년부 금요 모임을 위해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다.



■ PSG 미팅

2월 11일(주일) 2부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가 막 시작될 무렵 브니엘이 가장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한 뒤, 2024년 새해 첫 ICY PSG 미팅이 있는 2층 ICY 아침기도실로 향했다.

크리스 목사는 3월부터 EM 대학 청년부가 따로 모임이 생기므로 ICY 금요예배는 크리스 목사와 청년(리더) Joshua 의 인도 하에 드러진다고 광고를 한 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리더로 봉사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 뒤에 새로운 임원발표가 있었는데, PSG 회장으로 10년 가까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계신 강은숙 권사를 도와 PSG를 섬기게 될 새로운 리



더로 중등부 어머니 중에서 유리아 집사가 선출되었다. 앞으로 두분을 선두로 많은 분들이 ICY를 위해 동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많은 질문과 답들이 오고 가 점점 활

기를 띄어갈 무렵 시간이 다 되어 미팅은 끝났지만, 내 자녀가 있는 ICY에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더 모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문을 나섰다.

| 이성은 기자 |

서예 · 태권도... 다양한 특별활동 '신나요'

2024년 주안에한글학교가 봄학기를 맞았다. 올해부터는 교회 및 지역 커뮤니티의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수강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원하면 누구나 체계적인 한글수업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는 특별활동시간에 많은 전문분야의 선생님들을 모셔서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로버트임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오래 서예를 전공으로 가르치신 교육자로 현재 주안에라이프에서도 어른들께 서예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동안 받은 은사를 후회없이 나누고 싶다는 소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2년 3년을 목



표로 꾸준히 하나 하나 제대로 가르쳐 훗날 자기집 가훈이나 짧은 성경구절이라도 쓸 수 있게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다.

또한 이우중 집사님은 사실 본투비 체육인이 아닌 미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으로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중이라 처음엔 주일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육체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되긴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며 동작을 배우고 익히는 것 외에 태권도를 통해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올곧고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다.

함께 섬기게 되신 김별 사범님은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한 태권도를 통해 본인의 스승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롯이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며, 태권도의 기본인 집중력과 자기방어력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셨다.

주안에한글학교에서는 종이접기, 무용, 미술 및 기타 등등의 교회에 숨어 있는 다양한 능력자 선생님들을 모집 중에 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은사의 나눔을 통해 섬김의 기쁨과 더불어 아이들의 믿음의 토양에 따듯한 빛과 온기가 되여주길 기대해 본다.

| 이현영 기자 |



■ 교육부 교사 친교모임

2/11 주일, Wood Ranch Grill 에서 2024 교육부 Fellowship Lunch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배 교육부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자리는 매주 어린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힘써주시고 있는 요계벳 선생님들과 또 초등학생 반인 Now 와 Power 부서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모두 오셔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한 앞으로도 더 힘을 다하여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자는 다짐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성은 기자 |

■ 주안에씨앗 소감문

교회공동체의 소중함



최정윤 성도

갑작스럽게 얻은 질병으로 작년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낸 후 저는 건강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더 건강히 먹는 방법을 고민하고 몸에 좋은 영양제를 사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습관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분기별로 있는 검진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몸의 건강에 애쓰는만큼 과연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폭풍같은 시간이 지나갈 버티며 혹여나 내 마음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비워져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채우기 원하며 주안에씨앗을 등록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 믿음, 교회를 주제로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었지만 이제는 머리에서 희미해져가고 있던 주제들을 차근차근 짚으며 다시금 기초를 다질 수 있었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보고 읽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의 레드우드 나무들의 뿌리들이 얽혀있어 쓰러지지 않게 서로가 지탱해주고 있는 사진을 보며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함께 기도해준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가냘픈 나의 믿음의 나무는 진작에 쓰러져 부러지고 말았을텐데 붙잡아 준 공동체의 힘으로 버텼음을 다시 상기게 되었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새해 첫날, 원로장로님들과 시무장로님들께 '세배'를 하는 순서가 있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집에서 연습해 온 아이들도 있었으나 생소한 아이들을 위해 '세배하는 법'도 같이 익혔다.

장로님들께서는 손주, 손녀들을 바라보시듯 흐뭇해하시고 아이들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세배를 했다. 장로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주머니에 말씀이 적혀있는 책갈피와 세뱃돈도 준비해 주셨다.

| 이성은 기자 |

■ 주안에 일꾼

'하나님의 집 깨끗이' 얼굴없는 봉사자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교회 구석 구석을 청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H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본인의 기쁨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의 일을 드러내 놓고 하지 않으려고 토요일 오전, 성도님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오셔서 벌써 몇 년째 빠지지 않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교회 구석구석 여기저기를 쓸고 닦고 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곳도 어느새 깨끗하게 정리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의 손길이 지나 갔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한 사코 손사래를 치며 총총히 사라지는 모습에서, 권사님의 봉사가 매우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성전을 더욱 깨끗하게 사용해야 하겠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늘 사랑의 분을 보이시는 권사님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이광영 기자 |



■ 새가족 소감

임팩트 있는 말씀,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예배가 하나되지 못하고 은혜와 떨어져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인 민주 집사님과 Peter 집사님 부부의 늘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보고 들으며 주안에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남의 이야기처럼 여겼습니다. 형제님께서 일년이 상 예배와 멀어진 저의 남편에게 꾸준한 사랑과 관심으로 주안에교회로 먼저 초대해주셨답니다.

거의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일하던 남편은 형제님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작년 11월부터 1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다녀오더니 남편은 저에게 “너도 한번 와봐!” 라고 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었는데 그 말에 저도 함께 1부 예배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첫 예배가 성경정 공식 첫번째 ‘미래를 바꾸고 싶다’ 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자마자, 이곳이다! 이곳이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처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 하나 쪼개어 입에 떠먹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석끼리 끌리듯 자꾸만 따뜻한 예배당이 생각나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은혜와 멀어졌던 저의 눈에서 예배마다 어찌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던지요. 공식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게 되



니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게 일로 바빠 매주 가지 못한 예배가 저는 더 악착같이 가고 싶어서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두번도 들을 수 없는 예배 말씀이기에 한 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적었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목사님의 임팩트 있는 설교말씀이 생각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살면 내가 그리고 나의 가정이,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만 같은 희망적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9학년, 7학년 자녀들이 마음을 더해 주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체할 새가 없고 시간이 아까워 12월 첫째주부터 바로 아이들도 함께 주안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빠른 속도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갔고 어색하고 낯설었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이웃 집사님 부부 덕분에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 첫 주가 되어 저와 아이들은 등록을 결심했고 2월 11일 주안에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안에만남을 모르던 남편은 하루 전 날 교회에 가겠다는 결심을 스스로 하였고 결국 그날 교회등록도 하고 함께 주안에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비전과 철학을 듣고나니 이 교회가 더욱 좋아지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서빙해주시는 다채로운 음식과 특별 색소폰 연주, 찬양 모든 것이 풍성한 교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남편 그리고 세 아이들이 주안에교회에 더해진만큼 이 안에서 훈련받고 영적 성장과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삶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는 삶이 되어 지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 조은희 성도 |

■ 코람데오 청년부 리더 MT

2월 16일~17일 오후 4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국장님이신 양태섭 장로님, 양영 권사님 댁에서 새해를 맞아 코람데오 청년부 리더 수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요일예배 후 늦은 밤, 먼저 찬양과 합심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리더들을 서로 찬양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리더 매뉴얼 복습과 재 헌신 서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식사와 함께 청년부를 위한 더욱 디테일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는 회의를 마치고서 수



양회는 마무리 되었고, 코람데오 나잇(매달 한 번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청년예배)으로 순서는 이어졌습니다. 청년부 리더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목자로, 작은 목자로, 팀장으로 청년부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윤기 성도 |

■ 주안에 Hope

철조망 안 형제들 알아보기

재소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들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교도소 면회를 가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세계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민 가정에서 부모는 생업에 매달려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고 아이는 밖으로 나돌다 갯단에 들어가 마약 심부름을 하던 중,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청소년기에 종신형을 선고 받기도 합니다.

부모가 계셔도 아버지의 폭력으로 상처 받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며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소년기를 지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외부의 폭력으로 정신적 아픔을 아직도 갖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 3-4살 때 친엄마가 눈 앞에서 자살하는 것을 목격한 아픔을 갖고 평생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슨 커다란 죄나 계획을 세워 치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은 게 아니라 작은 죄를 빨리 발견 하지못해 방치해 두었거나, 먹고 살기 위해 바쁘다고 부모가 모른척 하다가 죄인 되었고, 언어와 습관이 달라서 죄인이 되기도 했겠지요. 그 안에서도 술을 만들고, 마약을 팔고, 문신을 하고 패싸움을 합니다.

체구가 작은 동양인은 언제나 먹이감의 표적이 됩니다. 두들겨 맞다가 시력, 청각을 잃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방문도 뜰해지고 철저한 고독속에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봅니다. 누구를 친구삼아 대화를 나누고 누구를 선생삼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서 제대로 못 배웠는데 청소년 시절 미국의 감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열악한 감옥의 시설은 선진국 미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감옥은 거의 다 멀리 있으니 방문하고 싶은 노부모가 찾아가기도 힘들거예요. 돌아갈 고국이 있는 부모는 한국으로 갔고, 남아 있던 분들은 감옥의 자식을 애타게 바라보다 세상을

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세 사람을 만날 예정으로 갔는데 한 건물은 비상이 걸려서 방문이 금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명의 방문객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3월에 출소 예정인 형제, 19살 형무소에 들어와 12년만에 출옥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이고, 나가서 함께 살 수 있는 가정도 없지요. 길러주신 조부모님은 안 계시고, 부모는 이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각각 이루고 살면서 면회도 오지 않았는데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데 이대로 세상 나가면 죄

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맑은 눈동자. 아무진 입매. 날씬한 체격. 세상사는 요령으로 신(神)을 쇼핑해서 믿겠다고 했더니 안타까울 뿐이지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미국법이 바뀌어서 미성년 때 범죄한 이들에게 감형을 주게 되어 다음달 3월에 세상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이 법을 알고 이 청년을 인도해 줄지 안타깝지요.

또 한사람은 종신형인

데 한국어권이예요. 한문에 숨겨진 복음을 잘 공부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중국사람은 나중 찾고 곁에 있는 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말이 안 통해서 힘이 든대요.

돌아오는 길은 마음도 무겁고 피곤도 해서 거의 조용한 가운데 돌아옵니다. 나도 같은 환경이었고,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감옥 갇혀 있었을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짓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옵니다. 하루 종일 거의 공복으로 지내다가 돌아오면 따뜻한 국물이 그리워집니다. 모처럼 찾아온 방문객을 보내놓고 다시 방으로 돌아간 우리 형제들도 목이 마르겠지요.

| 이예스더 기자 |



■ Avinal 교도소를 다녀와서...

2월 17일, Avinal Prison 에 수감되어 있는 세 형제를 방문하였다.

J 형제는(48세) 살인미수와 살인으로 복역중이고 2035년에 가석방을 청원할 수 있다. 사역팀과는 두번째의 만남이었고 스스로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자신의 삶을 절제하기 위하여 단전호흡과 채식을 실천하며 지낸다고 한다. 하나님과는 아직 먼 거리에 있는, 그리

고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했다.

사람에게는 타인에 대한 죄와, 자신에 대한 죄가 있다고 한다. 타인에 대한 죄는 타인의 내면에 깃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죄는 자기 안에 깃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자신에 대한 죄를 짓고 있는 형제가 안쓰러웠고, 잠시 그에게 깃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였던 나의 죄를 회개하였다. 멕시코의 한 동화(전설?)가 있다. “아

즈텍에서 큰 산불이 났다. 모든 동물들이 산불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한 작은 새가 강과 산불 사이를 부지런히 왕복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부영이가 그 새에게 물었다. ‘왜 도망가지 않고 그러는가?’ 새가 대답하였다. ‘내가 할 일을 한다.’ 그 새는 입을 물을 가득 담고 있었다.”

주안에호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이 작은 새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 전호선 장로 |

‘돈 많은 삼촌’ 과 선교지 교회

선교지에 건물을 세우지 말고 사람을 세우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사람을 세우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건물까지 세운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 교회재정이 어려워지고 선교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욱 적절한 방향이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세운다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다. 우리 팀은 선교지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 장학금을 주고, 미래 교수요원을 위한 석, 박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데이비드 보쉬는 “선교사들이 부자 삼촌”처럼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 방식으로 판단하고, 선교사 방식으로 지원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보쉬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선교지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 신학교의 미래 교수를 준비하는 ‘따치’와의 약속은 이런 고민의 한 흔적인 것 같다. ‘따치’는 2023년 3월에 실로암 신학교를 졸업하고 과압 신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에 다니고 있다. 그는 헌신된 부모에게 신앙을 배웠고, 명석하며 상황 파악을 잘한다. 신학교에서는 그를 미래의 신학교 교수로 결정하고 신학대학원에서 준비하도록 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의 질문이 있다. “왜 우리는 헌금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몇 년 전에 신학교에 배설교하고 내려온 나에게 질문한 것이다. 당시 미얀마 카렌 교회는 태국의 카렌보다 훨씬 가난하여도 훨씬 많



은 헌금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는 자신들을 돌아본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다른 그의 반응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미얀마 카렌 교회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을 재목처럼 보였다. 그 이후 일부러 그를 데리고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선교하는 카렌교회, 헌신, 선교사들의 영향 등에 대하여 나누었다.

오늘 그가 나와 한 약속은 ‘특별 헌금’에 관한 것이었다. ‘따치’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넉넉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선교사를 통해서 받게 된 지원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을 약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드림의 복’을 실천할 방안을 생각했다. 오늘 그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신학교를 위한 헌신에 제안을 했다. “신학교를 위하여 매달 200만을 헌금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는 선교 헌금에 관한 헌신이다. “우리 카렌교회도 선교를 해야 하는데, 따치가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

우리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온 선교사를 위하여 매달 200만(약 7천원)을 헌금해줄 수 있나요?”

‘따치’는 주저함 없이 대답하였다. “네! 신학교와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겠습니다.”

그의 헌신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약속한 따치가 고맙다. 어떻게 보면 약 200만은 많은 액수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에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을 세우고 선교사역을 위하여 구체적인 참여자가 된 것이다.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분이 되면 학생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닮고 싶어 할 것이다.

‘따치’의 매달 ‘400만’의 헌신은 그의 액수보다 큰 의미가 있다. 신학교의 미래 교수로서 사람 세우는 일을 그도 이제 ‘재정’을 통하여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국 카렌 교회 한 성도로서 태국보다 더 가난한 국가의 선교사를 돕기 시작하였다. ‘사람 세우기’와 ‘선교’ 사역에 분이 된 것이다. 태국 카렌 총회는 여전히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 카렌 성도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헌신의 복’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베푸는 헌신의 복’이 태국 카렌 교회 속에서 구체화되기를 소망한다. (지면 사정상 내용 축약)



오영철 선교사 · 태국 카렌신학교 교수

■ 4월 페루선교팀 사역 준비

주안에교회가 후원하는 박화균 선교사가 수고하는 남 아메리카 페루에 주안에교회 선교 팀이 선교를 떠나게 된다. 본 교회 김 현권 목사의 인도로 10여 명의 선교 팀이 페루의 수도 리마 부근에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 하였다. 이번 선교 활동의 주요 내역은 1. 선교지 지역 주민들에게 노방 전도를 통한 복음 전도 2. 선교지 교회 교인

및 주민 300명에게 안경 제작과 보급 3. 현지 선교 팀과 함께 내과 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한방 진료 4. 현지 교회 내에 진료실 건축 5. 지역 주민들에게 한식 소개와 기타 음식물 제공

선교 일정은 4월 15일 출발하여 4월 25일에 돌아올 예정인데 2월 18일 주일부터 선교 팀원들이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 함께 모여 선교를 위한 기도와 선교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박화균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응급 처치 약품-진통제, 외상 치료용 소독약, 해충 물린데 바르는 약품 그리고 어린이용 장난감 등이 많이 필요 하다고 한다. 선교 팀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교수들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동참해 주면 이번 선교 활동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특별히 이번 선교활동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 한다고 한다.

| 나형철 기자 |

■ 목장 에세이



■ 7목장 아몬드 농장 봄 나들이

지난 목요일 7목장(이복희 목자)에서는 Fresno Blossom Trail 을 다녀왔다. 끝도없이 늘어선 아몬드나무 향내음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신입목원들을 환영하는 의미와 새 봄을 맞이하는 뜻에서 마련한 이번 봄 나들이는 친목을 도모하며 목원들을 결속하는 의미에서도 복되고 감사한 하루였다.

| 임용자 기자 |



■ 영커플 4목장 '행복 런치'

지난 2월 17일 영커플 4목장에서 “불타는 청춘”이라는 감사하고 행복한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EM 후배들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영 커플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주어서 아이들 없이 편안하고 행복(?) 하게 불링과 맛난 점심을 먹으며 감사하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통하여 아가페 공동체를 위해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EM 후배들과 EM 크리스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정현철 집사 |



NEWSLETTER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윤석중,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